

“‘하룻길 모험’ 초등생 범죄 예방에 도움되길”

‘모바일게임 개발’ 조다해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 경장

최근 전국서 약취·유인 미수 잇따라
게임 통해 수상한 사람 112 신고 안내
전남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활용 등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 경장은 12일 “이 게임에는 약취·유인 및 무료 시식을 가장 한 마약 권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시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경장은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구 착용 및 올바른 횡단보도 보행 방법 등도 담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룻길 모험’ 모바일 게임.

목포경찰서는 모바일 게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했다. 범죄 예방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상한 사

람을 112에 신고하기’부터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하기’ 등의 단계를 거쳐 집에 도착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직접 게임을 하면서 범죄 예방법을 터득했다.

조다해 경장은 “딱딱한 글과 그림이 아닌 게임이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면서 “‘하룻길 모험’ 게임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져 범죄로부터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산하 교육기관의 교육에 활용토록 홍보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신고 의식과 교통질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정해선기자

손희하 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한글날 기념식서 감사패 수상



손희하(사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제579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우리말과 한글의 가치를 드높인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12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한글날 기념식은 지난 2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전남대와 광주시교육청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22년 정년퇴임한 손희하 교수는 국어문화 발전과 진흥에 헌신하며 우리말의 위상 제고와 한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 교수는 ▲한글날국경일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지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국어어문규범위원장 ▲전남대 국어문화원장 ▲한국어문학연구소장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정책진흥본부장 겸 언어정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종학당’을 기획·추진해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손 교수는 문화유산 안내문 감수, 공공언어 바로쓰기, 전라 지역 및 지역 어 보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손희하 교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세계화하는 지금, 한글날이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까지 함께 생각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조상이 전해준 우리말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서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여러 차례 수상한 국어학자다. /박현진기자

담양 봉산면 ‘마항마을 사람들 사진전’ 호응

10년만에 ‘추억을 기록하다’ 주제

40여가구·출향민 등 580점 전시



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 580점이 전시됐다. 마항마을의 과거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을 비롯해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는 수백장의 사진에

는 도포를 걸친 어르신, 마을 행사, 화전놀이, 농촌의 일상, 마을 장기자랑, 결혼식, 주민들의 젊은 시절 등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겼다.

출향민 이학민씨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시였다”며 “마을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유한 마항마을 노인회장은 “우리 동네에 전시된 작품들은 단순히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라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상곤 마항마을 이장은 “2015년 첫 사진전 이후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 더 많은 사진을 수집하고 보완해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이 소각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자료를 하나둘 모았다. 앞으로도 마을의 소중한 기억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마항마을 주민들이 장동 속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마항마을 사람들 사진전’을 개최했다.

12일 봉산면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에 열린 이번 사진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추억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시회에는 40여 가구 주민과 청년회, 출향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



해남서 건설기계산업 종사자 체육대회 성료

‘제18회 (사)건설기계개발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건설기계개발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종사자들과 가족, 내빈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등도 함께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기계개발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이자 전남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4년 10월 설립된 건설기계개발연명사업자협의회 전남도회는 현재 2천4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법정 전문안전교육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작업준수사항·재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정기 실시하며 건설기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정기자



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남도는 12일 (사)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가 지난 10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남도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원이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기탁식에는 장은술 회장, 박상식 상임부회장, 박종근 부회장, 이관식 부회장, 강승원 부회장, 김상도 감사, 박성준 총무 등 주요 향우들이 참석했다.

장은술 회장은 “비록 몸은 제주에 있으나 마음은 늘 고향인 전남에 있다”며 “회원들이 심심 일만으로 모은 기부금이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출향민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고 있다”며 “고향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깊이 감사드리고 보내주시는 정성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1971년 출범한 (사)재서귀포시 전남도민회는 약 5만명의 향우가 활동 중이며 지역 교류와 고향 방문 등을 통해 고향과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시원기자

목포보호관찰소協, 지역사회 범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는 “최근 목상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최해룡 목상고등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모욕, 다패이크 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정덕원 교육장 등은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며 협의회가 준비한 김밥과 음료, 홍보물품 등을 나눠주며 인사를 건넸다.

박백희 목포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하면서 사이버사범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기자

호남대, 사제동행 ‘2학기 글로벌 깐부’ OT 성료

호남대학교는 “최근 교수학습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 학생, 교원이 함께하는 ‘2025학년도 2학기 글로벌 깐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와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20명이 참여해 10주간 활동을 이어간다.

글로벌 깐부는 ▲교원과 학생이 가족처럼 결연해 정서적 유대를 쌓는 가족형 멘토링(PaMa) ▲전공 및 한국어 학습을 돕는 튜터링(Hi! Hi! Hi!)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끼리끼리)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학업·진로상담, 문화교류, 다문화가정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돌봄과 글



로벌 리더십을 함께 키워간다.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글로벌 깐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동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동신대 진로체험에 6개국 청소년 참여

동신대학교는 12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5 외국인 유학생 단기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나주순체험 대강당과 동신대 캠퍼스 일원에서 열렸으며, 한국 유학을 앞둔 베트남·몽골 등 6개국 청소년 77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도교육청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순례터와 지역문화 체험, 추석 전통놀이, 학과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했다. 특히 스포츠의학과, 사회복지학과, 뮤지컬실용음악학과, 뷰티미용학과 등 13개 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학과 탐방과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병호 국제한국어학과장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모집

▲‘노동정원’ 1기 회원 모집=대상:20대 이상 광주 시민 누구나, 강의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월 중순부터·총 10강), 강의 장소:살아있는 글쓰기연구소(광주 서구 쌍촌동), 강의 내용:아름다운 문장 낭독, 문장력 향상 훈련 등, 문의:010-9477-5561.

결혼

▲김병인·이윤경씨 차남 성록군, 김양민·김용애씨 장녀 수아양=1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 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은산 참약사(도안약국),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